

SARS 피해 막는 수출마케팅 촉구!

산자부, 지원계획 전면 재조정 ... 수출상담 지연에 대금회수도 미뤄져

부산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에 따른 수출 피해도 속출하면서 정부가 지원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5월2일부터 12일까지 무역협회에 접수된 SARS 관련 수출기업 피해신고는 모두 100건, 금액으로는 815만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내역으로는 ▷수출상담 지연이 59건에 526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해외전시회 참가 차질 13건 203만달러 ▷수출대금 회수 지연 16건에 44만달러 ▷선적지연 10건 39만달러 등이다.

산자부와 KOTRA(대표 오영교)가 추진하던 수출 마케팅도 중국, 홍콩, 베트남을 중심으로 전시회 참가 14건과 시장개척단 파견 18건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그러나 실제 피해규모는 접수된 신고액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 체계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하는 실정이다.

산자부는 우선 5월15일부터 KOTRA에 <SARS 수출애로센터>를 설치하고 KOTRA 본사와 사스 발생지역 17개 무역관 사이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화상상담 지원, 현장 수출입애로 해소, 수출상담 대행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의 수출마케팅 지원 계획을 전면 재조정해 중국과 타이완 등 SARS 확산지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고 업종단체 등을 상대로 해외 전시회 참가계획도 재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2003년 하반기 시장개척단 파견계획은 사이버 상담회로 대체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키 위해 6월 초 시장개척단 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5월16일 KOTRA와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종합상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SARS 수출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15>